책에서도 성공 거두는 기업인들

'문필업 개업' 부쩍 늘어…자서전 수필집 등 다투어 출간

'세상에 내놓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직접 저술하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선보이기 시작, 최근에는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는 기업가들의 저서는 신화적 판매량과 무성한 뒷이야기를 낳기도 했는데,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재고' '편협한 엘리트주의' 등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필가들의 붓끝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내맡긴 채 모델의 역할에 안주해왔던 종래의 기업가들과는 달리 '세상에 내놓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직접 저술하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다.

고생스러웠던 어린시절, 역경을 이기고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성공스토리가 주내용을 이루는 자서전과, 기업경영인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집이 주종을 이루는 이들 책은 80년대 말부터 선보이기 시작, 최근에는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는 실정.

기업인 출판이 이같이 급증하게 된 데 대해 관계자들은 대체로 ▲재벌 또는 지명도 높은 기업인 개인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 ▲'성공학', 출세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 ▲기업가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과 그를 통한 기업홍보 효과를 노린 각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 ▲기업인 출판물이 거둔 성공적인 선례에 힘입은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기획 등을 그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판된 기업인들의 저서는 실제로 출간 즉시 급속도로 팔려나가며 그 판매량 역시 여타의 단행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어서 기업인 출판의 활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국내 출판사상 초유의 밀리언셀러

기업인 출판의 선두주자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영사)를 꼽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옥포에 내려가 있으면서 구상을 하고 집필을 했다는 이 책은 그가 기업경영을 통해 얻어진 체험과 거기서 체득한 교훈들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한 것. 89년 11월에 초판을 발행, 91년 11월 현재 129쇄 130만부를 찍어낸 이 책은 국내 출판사상 초유의 밀리언셀러를 기록.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미국·소련·헝가리 등 10여개국어로 번역, 수출되기도 했다.

'꿈의 차 팬더의 신화'라는 부제를 단 김영철 진도그룹 부회장의 「사랑과 비즈니스에는 국경이 없더라」(청림출판사) 역시 89년 연말에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책. 57년 초부터 경험한 외국생활, 40대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팬더카 이야기, 스위스 여인과의 사랑과 결혼, 가족 이야기 등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우리 또래의 연배들에게는 미소를 떠올릴 수 있는 지난 시절의 이야기로, 해외에 뜻을 둔 젊은이에게는 선배의 조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집필의도.

「작은 것에 큰 뜻이 있더라」(해냄)는 그가 내놓은 두번째 저서로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엿들은 평범한 관찰의 기록이다. '홀로 떠나는 길에서' '젊은이여 야망을 갖자' '우리글 바로쓰기' 'TV와 만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저자의 관심과 생각들을 읽을 수 있다.

경리사원으로 입사 20여년 만에 최고경영자가 된 삼익악기 이호진 대표이사의 「2000년대를 움직이는 젊은이들에게」(현대문화센타)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책이다.

이러한 책들은 미리 주요독자를 설정하고 쓴 제언이나 잔잔한 일상적 이야기 속에 기업가 개인의 체험을 끌어넣는 일종의 수필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김영사에서 곧 출간될 예정인 아가방주식회사 김욱 사장의 책 역시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글'을 모았다.

개인사, 기업성장사 담은 자서전도

기업가의 개인사, 기업의 성장사 및 인생관 경영철학 등을 총체적으로 담은 본격적인 자서전도 적지 않게 나와 있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제3기획)는 그 대표적인 경우. "종교에는 기적이 있지만 정치와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 유수의 대기업의 총수가 되기까지의 개인사와 함께 현대그룹의 창업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겪었던 고통'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정부, 정치가 및 일부기업가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출판시기와 맞물린 세금추징건과 관련한 무성한 뒷이야기를 낳기도 했다. 30만부에 달하는 초판 발행부수는 한국출판계의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재계의 거물급답게 무수한 화제를 뿌리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책과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꾸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자서전도 있다. 종업원 50여명, 91년 매출목표 20억원 규모의 탄탄한 중소기업 영진전기의 사장 서한수씨의 「맨주먹 창업」(삶과 꿈), 생필품 판매업체인 우리슈퍼마켓의 대표 성보경씨의 「샐러리맨에서 사업가로」(풀잎)가 그것.

"소수론의 역사관" 반박도 없지 않아

한편 기업가들이 쓴 책 중에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현실을 분석한 책도 눈에 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행정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 쌍용양회 회장으로 있는 김채겸씨의 「點에서 面으로」(대림기획)는 관계·학계·재계를 두루거친 저자가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글을 모은 것으로 현장경제평론적 성격의 글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 태평양의 공룡」(도서출판 스몰비즈니스)은 도서출판 스몰비즈니스의 대표인 양갑모씨가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을 연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와 평가를 덧붙인 책이다.

우리의 독서시장에 새로운 '인기저자군'으로 등장한 기업가들이 쓴 책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사랑」(박노해 지음, 노동해방문학사)와 「위대한 기업가의 가난한 철학」(이성태 지음, 민맥)은 이들 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각각 김우중, 정주영씨의 책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 이들 책에서 저자들은 '기업은 사회적인 재산'이라는 기업가들의 말은 허구에 찬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가치체계는 "엘리트주의, 개별기업 중심의 사고, 능력있는 소수론의 역사관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긍정론을 펴는 사람들의 입장은 대체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모아진다. 박민석씨(해냄출판사 편집장)는 "최근에 출판되고 있는 기업가들의 책은 종래의 위인전류의 책과는 달리 전문경영인으로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일반독자와 공유하고자 하거나, 일상적 삶의 모습, 성공한 기업인의 내면에 감추어진 고뇌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들 책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기업가들의 역할을 평가, 인정하고 우리 기업가들의 인생관, 경영관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책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시류에 편승하여 마구잡이로 출판하려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각 기업가 개인이 지닌 특성과 전문지식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박남정 기자